

주현절 제1주일/2019년 1월 6일(일)/신년주일

구약: 이사야서 60,1-6

서신: 에베소서 3,1-12

복음: 마태복음 2,1-12

약속의 공동상속자

1. 올 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십이지(十二支) 중 열두 번째 동물인 돼지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나 고사상, 굿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돼지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언제나 복(福)과 관계된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돼지꿈을 꾸면 재물 운이 있다는 속설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신장의 기운을 보하는 식품으로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도 무균돼지 안에서 배양할 수 있는 유익한 동물이지요.

이탈리아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는 ‘논문 잘 쓰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학문적 논문을 쓴다는 것은 돼지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돼지를 잡으면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 돼지 머리고기부터 족발에 이르기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 논문을 쓰는 경험은 마치 첫 사랑의 경험처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돼지는 기피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돼지는 혐오동물이었습니다. 근동에서 돼지가 기피 혹은 혐오 동물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돼지가 부패했거나 더러운 것도 먹어치우고, 날씨 때문에 고기도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위생 이론’, 부족의 토tem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라는 ‘토tem 이론’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돼지가 잡식동물이어서 식량과 물을

두고 인간과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는 유대인에게,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레 11,7; 신 14,8)입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의 이런 전통을 수용했기 때문에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가 기피되는 혐오동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세계에서 돼지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Rene Girard, 1923-2015), ‘성스러움과 폭력’, ‘희생양’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르네 지라르는 제의에 바쳐진 돼지 머리가 인간의 머리를 대신한 폭력적 제의의 한 형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희생 제물이 돼지 머리로 대체된 것은 비명소리가 비슷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는데, 희생양 메커니즘은 모든 인류 문화의 공통된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에게 작은 폭력을 가함으로써, 더 큰 폭력, 신의 진노, 자연 재해나 재난, 전쟁이나 개인적 불행의 형태로 일어나는 더 큰 폭력을 피하려는 폭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돼지는 한 편으로는 다산과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와 기피 동물입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인간과 경쟁적 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신한 희생제물이었던 것이지요.

2. 오늘의 설교를 굳이 돼지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올 해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의 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세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도직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은 비밀을 계시로 알려 주셨는데,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엡 3,6)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혐오하는 것만큼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이방인이 상속받은 것이 같지 않았고, 또 같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집단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지, 수용과 공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공동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엡 3,11)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다(엡 2,14-15).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것’(엡 2,16)이지요.

르네 지라르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수난은 인류 문화의 희생 제의적 기원을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폭로했고(히 10,12), 모든 성스러움과 신화가 감추고 있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모든 제의적 폭력,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와 거기에 참여하는 군중의 은폐된 폭력을 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에 희생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인 희생양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의에 대한 종말론적 비판이자 저항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엡 3,6)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상속은 정신적 유산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집, 전답이나 땅, 빚 등 재산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유대인은 조상으로부터 율법과 땅, 배타적 구원을 상속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전혀 다른 것을 상속받으려면 이방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대적 관계, 배제와 혐오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제와 혐오의 희생양이 되시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이들을 ‘약속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집단 사이의 화해는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엡 3,10)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곧 보편적 구원의 약속입니다. 상속은 과거를 받는 것이지만, 약속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혐오와 배제로 양극화된 두 집단 사이의 화해는 한 집단의 과거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가능합니다.

3. 그렇습니다. 오직 미래의 약속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제3이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3이사야는 주전 537년,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칙령을 반포한 후부터, 주전 515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봉헌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궁핍이 극에 달해 어렵고 무질서했던 주전 455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가난과 곤궁과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3이사야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현실은 아직 암울한데, 구원의 빛이 이미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이스라엘 민족 위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이 60,1). 예언자는 아직 고난과 역경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3이사야의 구원선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민족들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에 따라 대전환이 일어날 터인데, 이방민족들도 바로 이 전환에 참여하여 봉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민족의 배제와 파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는데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이 60,3-4).

제3이사야에게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배타적 구원이 아니라, 이방민족도 참여하는 포용적 구원입니다. 이런 보편적 구원사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계, 나아가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확대됩니다(이 65,17-25).

그리고 마침내 이런 믿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들이었다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방인의 경배를 받은 아기 예수님은 성장하여, 율법과 관습에 의해 배제되고, 혐오와 차별 받는 사람들, 어린이와 여인, 병자와 귀신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어 고난 받으심으로써 사람들을 희생양들로 만드는 제의, 오래된 구조악을 무너뜨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신 것이지요.

4. 오늘의 한국사회는 상속받은 유산 때문에 분열되었고, 갈등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에릭 홉스봄이 규정한 ‘극단의 시대’ 한 복판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노사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간, 세대간, 성별간 갈등, 최고의 자살율과 ‘묻지마 살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양극화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대화를 통해 조절되고, 타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증오에 가까운 혐오와 대결로만 끝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모든 대립과 갈등, 혐오와 증오는 사실 과거, 곧 역사로

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일제식민지배의 유제,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개발독재와 압축적 성장에서 온 것이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지역주의에서 온 것이든, 모두 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속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혐오는 더 깊은 불신으로, 불신은 더 깊은 증오로 인도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갈등하는 두 집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상속자가 될 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미래, 온 인류와 우주의 보편적 구원의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만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과거를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약속의 공동상속자입니다.

<설교 후 기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 2,14-16),
원수된 이들을 약속의 공동상속자로 만드시어,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 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역사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
새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
바친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하여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뭇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시옵소서(이 66,12).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은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시옵소서(이 58,11).
우리나라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이 65,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